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
기획전시 플랫폼·옥상정원 등 구성...2027년까지 건립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윤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어 입선작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품의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대지 활용도,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4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51억 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입선작 4개 작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여한다. 오는 8일까지 시정 1층 시민 숲에 전시한다.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광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상체를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의 열린 문화 융합전시관을 제시했다.

지하에는 전시작품 설치와 철거 효율성, 관람 동선의 쾌적성, 현대 작품의 다양한 크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변성을 지닌 기획전시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카페테리아·아트카페·학습공간·교육공간·다목적상영관·로비를 배치해 전시가 없을 때에도 시민들이 찾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열린광장을, 지상 3층은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지상 4층에는 상설전시관을 배치

했다. 지붕층은 상설전시실과 연계된 옥상정원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만남·소통·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김요성 시 문화체육실장은 “20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7년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이 건립되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생동감 넘치는 시민 친화적 문화 향유·치유 공간으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가 남구 방림근린공원 생태계 복원한다

연말까지 4억6000만원 투입...수목 식재와 휴식 공간 조성

광주시가 남구 방림근린공원 생태계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1월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생태계복원사업은 대규모 공사 때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태계보전과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방림근린공원은 무등산 생태축에 위치, 도심 내부의 생물서식처를 이 어주는 산림형 생물서식처로 도심 생태네트워크의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이면

서 무단 경작지와 쓰레기 방치로 훼손이 심해 도심 내 생물서식처로의 기능이 저하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국비 4억6000만 원을 투입해 방림근린공원 일대 1만2387㎡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복원사업은 수목 식재를 통해 생물서식처를 복원하고, 생태놀이·체험·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3년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비롯해 총 10개 지역(25만5000㎡)에 국비 90억 원을 확보,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조일상 기자

내년 어르신 6만4천명 일자리
전남도, 7천명 늘려

전남도가 노년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할 내년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난 6만4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남도는 어르신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으로 사업비는 올해보다 548억 원 증가한 총 2592억원을 투입한다.

급여와 수당도 인상된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 시 ‘71만3000원→76만1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증액된다.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을 수행하는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다. 취약계층과 공공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사업 만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실버카페 등 소규모 매장 운영과 식품·공산품 제조·판매 등 ‘시장형 사업’과 경비원·관리사무직 등 민간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어르신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COP28 전라남도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 국제포럼 중동을 순방중인 김영록 지사가 1일(현지시간)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블루존 이클레이관에서 개최된 전남도 주관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 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과 탄소중립 연대를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COP33 유치 총력’ 전남도, 두바이서 탄소중립 전략 포럼

김영록 지사, 바다숲 등 사례 공유·COP33 유치 지지 요청

전남도가 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1일(현지시간)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 도시들과의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계속되는 전 세계적 기후 위기 앞에 탄소중립 정책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각국 지방정부와 연대 협력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개최했다.

포럼은 총회 블루존 이클레이관에서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해의 지방정부 단체장,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의 ‘전남 연안 지역의 특성과 탄소중립 잠재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찬

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전남도’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선 권봉오 군산대 학교 교수, 해의 지방정부 단체장 등이 참여해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연안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후 “해양자원 기능 회복에 앞장 서고 있는 전남도의 ‘COP33 유치’에 많은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호 기자

구축·운영, 사업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를 외부 전문가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조사로 가공시설은 시설건축비, 기계·장비·설비, 계단·방역·사무시설비 등에 한 곳당 9억원(보조 5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조사로 유통시설은 조사로 저장시설, 소포장 등 신규 설치비용 12억원(보조 7억 원)을 보조한다.

조사로 전문단지는 조사로 재배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하고, 5년간 조사로 제조비·기계장비·종자 등 세부 사업별로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퇴역비, 입도중 파손비, 품질등급제 등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김 호 기자

광주시, 아이키움 플랫폼 만족도 조사

광주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5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성평등 양육가치관 확산 및 다양한 가족 형태 증가에 따른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문은 올해 초 전면 개편해 운영하는 광주아이키움 플랫폼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에 오픈한 빠른(퀵)메뉴 ‘우리동네 아이돌봄’의 이용 만족도를 포함한 접근 편의성, 정보의 유익함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문답 형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플랫폼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참가자 중 15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조순주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광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FAX:062-362-0078

이메일:honamnews@hanmail.net